

보도자료

제 목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문 의	- 취재 문의: 장효진 (t. 031-201-8545)	
자 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 포	2023.7.12.	쪽 수 총 6 쪽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 ▶ 7월 20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91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7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 운영
- ▶ 백남준 생일주간을 맞이하여 백남준 전시를 천천히 감상하고 배워보는 프로그램 <보다, 천천히>,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해설 영상 <걸리버>(2001), <코끼리 수레>(2001) 공개
- ▶ 어린이들이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기술의 원리를 배워보는 <백남준의 실험실> 워크숍 운영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7월 20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9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주간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이벤트와 워크숍으로 이뤄진 ‘Happy Birthday! 백남준’을 진행한다. 올해는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백남준의 작품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미디어 아트의 원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워크숍 2종이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남준 전시 《사과 씨앗 같은 것》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백남준의 실험실Ⅱ: 내 맘대로 소리 실험〉, 〈백남준의 실험실Ⅲ: 내 맘대로 빛과 색 실험〉이다.(7월 22일) 소리, 빛과 색을 움직이고 만들어냈던 백남준 작품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실험을 통해 새롭게 창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백남준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을 제안하는 〈보다, 천천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7월 19일 -21일) 관람객이 전시를 즐겁게 감상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고 이해하는 〈보다, 천천히〉는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백남준의 제안을 되짚어 보면서 《사과 씨앗 같은 것》에 전시된 작품을 보다 천천히 관람할 것을 제안한다. 작품을 보다 천천히 관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상용 키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작품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7월 20일, 백남준 작가의 대표 작품 〈걸리버〉, 〈코끼리 수레〉 소장품 해설 영상 ‘큐레이터와 함께’ 시리즈를 공개한다. 2022년에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하여 공개한 작품 〈걸리버〉는 길이가 4미터가 넘는 거대한 로봇으로 모두 11개의 CRT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18대의 소인국 로봇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거대한 걸리버의 온몸을 전선으로 포박하고 있는 연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코끼리 수레〉는 과거의 오브제들과 새로운 매체가 혼합된 작품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통신이 전파되는 방식을 재고하게 하는 작품이다. 두 작품에 대한 자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백남준아트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mJunePaikArtCenter>)에서 만날 수 있다.

생일 주간에는 이벤트를 통해 관객에게 선물도 증정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면 백남준아트센터 인기 아트상품을, 〈보다, 천천히〉에 참여하여 SNS에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뮤지엄숍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1. Happy Birthday! 백남준: 참여형 이벤트

생일 주간에 2가지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백남준에 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백남준 작품의 TV 색상조정화면을 모티브로 제작된 '색동가방' 및 다양한 백남준아트센터 인기 아트상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과 씨앗 같은 것》 전시 작품을 천천히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즐거운 감상법 <보다, 천천히>에 참여하여 SNS에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뮤지엄숍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1.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 ▶ 이벤트 기간: 2023.7.17.(월) - 7.23.(일)
- ▶ 당첨자 발표: 2023.7.28.(금)
- ▶ 선물: 백남준아트센터 색동가방(2명), 소장품 하이라이트 도서(3명), <달에 사는 토끼> 아크릴피규어(10명), <버마 체스트> 트레블 네임택(10명)
- ▶ 참여방법: @njpartcenter 계정 팔로우,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댓글에 정답과 생일 축하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 2. 즐거운 감상법 제안 <보다, 천천히> SNS 인증샷 이벤트

- ▶ 이벤트 기간: 2023.7.19.(수) - 7.21.(금)
- ▶ 선물: 뮤지엄숍에서 준비한 특별한 상품(일별 선착순 10명)
- ▶ 참여방법: SNS에 <보다, 천천히> 참여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 3개와 함께 게시
(#백남준생일축하해 #보다천천히 #백남준아트센터)

2. Happy Birthday! 백남준: 백남준의 실험실

백남준의 생일 주간에 맞추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남준 전시 《사과 씨앗 같은 것》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랜덤 액세스>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백남준의 실험실Ⅱ: 내 맘대로 소리 실험>과 <퐁텐블로>를 감상하고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통한 실시간 비디오 이미지 제작 원리를 배우보는 <백남준의 실험실Ⅲ: 내 맘대로 빛과 색 실험>을 진행한다.

<백남준의 실험실Ⅱ: 내 맘대로 소리 실험>

- ▶ 일시: 2023.7.22.(토) 10:30
-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제1전시실 및 상설 교육 공간
- ▶ 대상: 10-14세 어린이(12명)
- ▶ 구성: <랜덤 액세스> 작품 설명 및 원리 학습, <내 맘대로 플레잉 플레잉> 체험과 나만의 소리책 만들기

〈백남준의 실험실Ⅲ: 내 맘대로 빛과 색 실험〉

- ▶ 일시: 2023.7.22.(토) 14:30
-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1제1전시실 및 상설 교육 공간
- ▶ 대상: 10-14세 어린이(12명)
- ▶ 구성: 〈풍텐블로〉 작품 설명, 백남준의 비디오와 신디사이저 RGB 빛 합성 실험, 나만의 비디오 콜라주 만들기

3. ‘Happy Birthday! 백남준: 보다, 천천히’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백남준의 제안을 되짚어 보면서 《사과 씨앗 같은 것》에 전시된 작품을 보다 천천히 관람하기를 제안한다. 작품을 보다 천천히 관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상용 키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작품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감상법 제안 〈보다, 천천히〉

- ▶ 일시: 2023.7.19.(수) - 7.21.(금)
-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로비, 제1전시실
- ▶ 대상: 누구나
- ▶ 감상용 키트 구성: 활동지, 타이머, 감상용 의자

4. Happy Birthday! 백남준: 소장품 영상 공개

백남준 작가의 생일을 기념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와 함께’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편인 〈걸리버〉와 〈코끼리 수레〉 해설 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다.



큐레이터와 함께 6: 백남준, 〈걸리버〉(2001)



큐레이터와 함께 7: 백남준, 〈코끼리 수레〉(2001)

백남준 생일 주간 'Happy Birthday! 백남준' 프로그램 안내

일시	프로그램	장소	참여
7.17.(월) - 7.23.(일)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백남준아트센터 인스타그램	제한 없음
7.19.(수) - 7.21.(금) 10:00 ~ 17:00	〈보다, 천천히〉 SNS 인증샷 이벤트	로비, 제1전시실, 뮤지엄숍	당일 방문 관람객
7.18.(화), 7.20.(목)	소장품 영상 공개	백남준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자
7.22.(토) 10:30	〈백남준의 실험실Ⅱ: 내 맘대로 소리 실험〉	1층 제1전시실, 상설 교육 공간	사전 신청자
7.22.(토) 14:30	〈백남준의 실험실Ⅲ: 내 맘대로 빛과 색 실험〉	1층 제1전시실, 상설 교육 공간	사전 신청자

백남준(1932.7.20. - 2006.1.29.)



〈로봇 K-456〉을 시연 중인 백남준, 1982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폴 게린)

백남준은 1932년 종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이주, 도쿄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였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비디오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야와 영상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고,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1996년 이후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와중에도 레이저 기술을 도입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실천은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로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